

2026년

기후정의주일

자료집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호 4:1-3)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2026년 9월 20일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26년 기후정의주일 자료집 목차

- 초대의 말** “이 땅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 2쪽
- 주제 해설**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 3쪽
- 예배자료** 예배단과 예배공간 꾸밈 / 5쪽
- 기도문** 기후정의주일 공동기도문 / 6쪽
- 설교자료** “창조세계의 탄식, 우리의 응답” / 8쪽
- 실천자료** 기후정의주일, 교회의 7가지 복 된 실천! / 15쪽
- 나눔자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 17쪽
- 안내자료** 2026기후정의연합예배, 919기후정의행진 / 21쪽

초대의 말

"땅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가뭄은 자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일터와 농민의 삶, 지역공동체와 이웃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CCK 역시 이러한 현실을 생명과 정의의 문제로 바라보며, '기후정의 10년 행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생태적 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과 함께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경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향해 전환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 기후정의주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이웃과 창조세계를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 땅이 슬퍼하며" 있다는 사실에 귀 기울이고,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전환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땅이 다시 숨 쉬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며 누구도 전환의 과정에서 뒤에 남겨지지 않는 세상 그 길을 향해 한국교회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자료집이 각 교회의 예배와 나눔, 실천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기후정의주일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주제 해설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호세아 4: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정의, 신앙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제69회기 제4차 실행위원회(2021년 10월 21일)에서 생명·문화위원회(현 기후정의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매년 세계기후행동의 날(9월 24일)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돌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자는 공동의 다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1984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며 환경보전을 선교적 과제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환경보호만으로는 응답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 생태계의 붕괴는 기후위기가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피해는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먼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불의를 바로 세우는 기후정의입니다.

교회협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앞에서 향후 10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인식하며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응답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후정의星期은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예배와 교육,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공동 고백입니다.

2026년 기후정의주일은 호세아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호 4:1)고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의 탐욕과 폭력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땅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오늘의 기후위기 역시 우연한 재난이 아닙니다. 끝없는 성장과 과잉 소비, 인간 중심의 개발과 탐욕이 창조세계를 병들게 했고, 그 결과는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생명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올해 기후정의주일은 땅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탄식의 원인이 되는 불의한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복음의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명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2026년 기후정의주일을 함께 지키며, 예배와 나눔을 통해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백영기 목사

NCCK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예배자료

예배단과 예배공간 꾸밈

기후정의주일의 예배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세계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기억하는 자리로 꾸밈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과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예배 자체가 창조세계를 돌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예배단에는 나뭇가지, 돌, 흙, 풀과 꽃, 열매, 물 등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재료를 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기보다 교회 주변의 자연물이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활용하고, 일회용 장식과 플라스틱 사용은 줄입니다. 한편에는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생명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담은 글이나 이미지를 놓아, 기후위기를 환경의 문제를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의의 문제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 도시와 지역의 교회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기억하고, 그 탄식에 귀 기울이며, 기후정의를 향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6환경주일에배 단 꾸밈

기후정의주일 공동기도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땅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소음으로 주님의 소리를 가리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착취와 탐욕의 계획을 흠으시며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땅의 탄식이 더 크게 울려 퍼지게

깨어 외치는 이들을 보내소서

그 탄식 소리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리스도여

당신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굳건하오니

우리에게 그 탄식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그 소리 우리의 심장을 울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켜 걷는 그 길가에서

울고있는 이들의 손을 잡게 하소서.

그 눈물은

땅을 지키고 숲을 보호하며 멸종위기종을 기억하고 돌보며
대규모 개발과 자본의 투기를 막을 것이나이다.
연약하지만 가장 빛나는 힘으로 우리를 지킬 것이나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오게 할 것이나이다.
이권으로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고가는 결정을 우리에게 속히 들려줄 것이나이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게 하소서.
우리의 행함은 새 시대를 속히 오게 하나이다.

주여, 주 예수여, 우리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이룩하소서.
난개발로 신음하는 저 땅의 울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가 이룩되게 하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닿아
움직여 행하게 하소서.
변혁을 일으키시고 새 시대를 이룩하게 하소서.
정의의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행함을 불러일으키게 하소서.

우리를 맞잡게 하소서.
우리를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를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성 | 이쁜이 사제(대한성공회 남양주성생원교회)



설교자료 (1)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주제본문 / 호세아 4:1-3 (새번역)

1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2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3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이 인간 사회에만 머물지 않고 땅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생명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의, 생명의 파괴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함께 무너진 결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땅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무너지는 생태계,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설교자료 (2)

창조세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고본문 / 창세기 2:15, 레위기 25:1-12 (새번역)

15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1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쉬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3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5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6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7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8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칠 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사십구 년이 끝난다.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10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11 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12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은
인간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안식년은
인간의 생산과 소유뿐 아니라
땅에도 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신앙은
창조세계를 무한히 소비할 권리가 아니라
돌보고 회복시킬 책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설교자료 (3)

기후위기는 약한 이웃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참고본문 / 신명기 24:19-22, 아모스 5:21-24 (새번역)

19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 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20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1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2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22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23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누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가?

성서는 반복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
고아와 과부의 삶을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속 노동자, 농민, 이주노동자, 에너지 빈곤층처럼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한 탄소중립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료 (4)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의 전환을 꿈 꾸는가

참고본문 / 이사야 65:17-25 (새번역)

17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18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19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21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22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모래모래 누릴 것이다." 23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환경이 회복되는 세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삶과 공동체, 창조세계가 함께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도
무엇을 줄이고 바꾸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누구도 자신의 삶과 수고를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설교자료 (5)

피조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입니다

참고본문 / 로마서 8:19-23 (새번역)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바울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 탄식이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라지는 생명, 불타는 숲, 변화하는 바다, 황폐해지는 땅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탄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이 탄식에 귀 기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설교자료 (6)

서로의 집을 지는 전환

참고본문 / 갈라디아서 6:2 (새번역)

2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전환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사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전환 지역의 주민과 자영업자, 농민과 노동자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담과 희생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기술산업을 향한
거대한 투자와 경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막대한 전력과 자원, 새로운 노동과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그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함께 물어야 합니다.

나의 편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과정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이웃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을 돌보며, 기술의 발전에서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설교자료 (7)

길 잃은 날의 지혜 박노해 시인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피 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피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실천자료 (1)

기후정의주일 교회의 7가지 복 된 실천

1. 기후정의주일 예배를 지켜주세요.
설교와 기도, 찬양을 통해 기후위기를 신앙의 문제로 묵상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함께 고백해 주세요.
2.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석탄발전 노동자, 농부, 어민, 폭염 속 노동자, 도시 빈민 등 기후위기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배와 주보, 간담회를 통해 나누어 주세요.
3. 교회 안에서 기후정의를 이야기해 주세요.
구역, 속회, 셀모임 등에서 “기후위기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세요.
4. 교회와 우리의 탄소발자국을 돌아봐 주세요.
전기와 냉난방, 일회용품, 식생활 등을 점검하고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해 생활을 돌아봐 주세요.
5. 교회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주세요.
텀블러와 다회용 식기 사용, 절전, 채식 한 끼, 지역 먹거리 이용 등 교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6. 기후정의행진과 지역의 기후행동에 참여해 주세요.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해 지역의 환경정화, 나무심기, 생태탐방, 기후강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에 참여해 주세요.
7. 기후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 주세요.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누구와 연대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주세요.

실천자료 (2)

1.5°C 라이프스타일 탄소발자국 계산기

우리는 창조세계를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요?

'1.5°C 라이프스타일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식생활, 이동, 에너지 사용, 소비 습관 등을 바탕으로 나의 탄소배출량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전환을 제안하는 도구입니다. 기후정의는 거창한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개인: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며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한 가지 실천을 정해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소그룹: 구역, 속회, 셀모임, 청년모임에서 함께 계산해 보고 결과를 나누며, 공동의 기후실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교회: 기후정의주일이나 창조절 기간에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저탄소 식생활 등 교회 공동체의 실천 계획을 세워 보세요



탄소발자국 계산기
15LIFESTYLE.OR.KR

나눔자료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상의 인터뷰

"기후위기,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기후위기는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후위기는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고,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달라진 계절과 불안정한 수확으로, 노동자에게는 폭염 속에서도 계속해야 하는 노동으로, 도시의 가난한 이웃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냉난방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지, 지역경제와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상의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석탄발전 지역의 노동자부터 산업전환 지역의 주민, 농부와 어민, 폭염 속 노동자, 기후위기 취약계층, 미래세대까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일자리와 노동, 지역과 생계, 주거와 빈곤, 세대와 미래의 문제로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폭염 속 노동자

**더우면 쉬라고 하지만,
쉬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폭염에는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일을 쉬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계를 이어갈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바다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함께 변합니다.**

잡히는 물고기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없던 어종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낍니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기후정의의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어업종사자

**폭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할 곳조차 없는
재난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냉방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집이 좁고 오래되어 더위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폭염이 찾아와도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처럼 주거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

**발전소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에서 일해야 하나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평생 일해 온 우리에게도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노동자의 삶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장이 바뀌면
우리 동네의 삶도 달라집니다.**



지역 자영업자

공장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과 가게, 학교와 동네의 인구도 함께 변합니다. 산업의 전환을 넘어 지역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농민

**이제는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두렵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염과 병충해도 늘었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 기후가 달라져서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를 위해 누군가는 어떤 기후를 견디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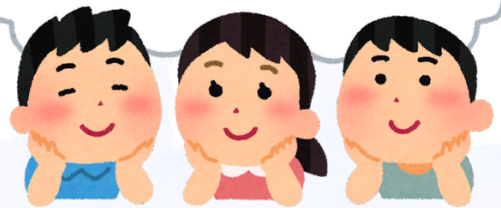


교회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그대로어도 괜찮을까요?

교회의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과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기후정
의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
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남겨 주세요



오늘의 선택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기후위기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기후정의 당사자입니다.
기후정의는 미래세대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안내자료(1)

2026기후정의 연합예배 9월 19일(토) 1시 30분, 덕수궁 돌담길

[2026 기후정의연합예배]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식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아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썩어 마를 것이다."
(호세아 4:1-3)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 30분
덕수궁 돌담길(서울시청 별관 앞)

2026 기후정의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생태정의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인연대, 성서한국, NCCK기후정의위원회

후원 계좌 농협 301-0250-2630-4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26기후정의 연합예배
참가신청서



후원 및 문의

농협 301-0250-2630-4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NCCK기후정의위원회 02-765-1136

연합예배 공동주최 참여

공동주최 단위로 참여해 주시는 경우,
예배 준비를 위한 소정의 분담금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지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최 교회·단체명이 함께 소개됩니다.

안내자료(2)

919기후정의행진

<일정>

일시: 2026.9.19(토) 오후 3시(사전행사 12시)
장소: 서울시청-송례문

<프로그램>

12:00 - 15:00 참여단체 사전 부스
13:00 - 14:20 오픈 마이크
15:00 - 16:00 집회
16:00 - 17:40 행진 & 마무리집회

<홈페이지>

action4climatejustice.kr



2026년
기후정의주일
"들어라 땅의 탄식을,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문의

NCCK기후정의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02-711-8905
www.greenchrist.org

기후정의주일 자료집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